



통신서비스업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김희재 hoijae.kim@daishin.com

1. 주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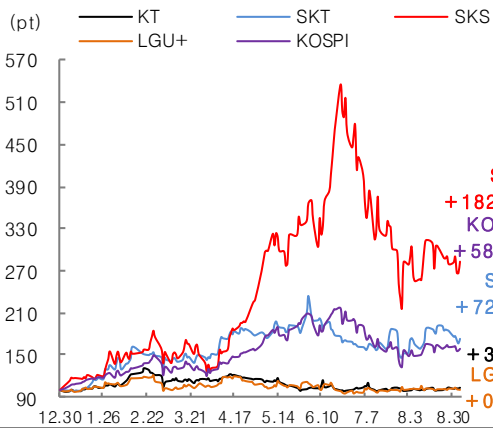
기업	25/12/30	08/28	09/04	연간 상승	수익률	주간 상승	수익률	12MF DPS	배당수익률	주간 그래프
SKT (017670)	53,500	98,600	92,500	▲39,000	▲72.9%	▼6,100	▼6.2%	3,160	3.4	
SK스퀘어 (402340)	368,000	1,028,000	1,041,000	▲673,000	▲182.9%	▲13,000	▲1.3%			
KT (030200)	52,600	54,500	54,300	▲1,700	▲3.2%	▼200	▼0.4%	2,700	5.0	
LGU+ (032640)	14,720	15,020	14,760	▲40	▲0.3%	▼260	▼1.7%	700	4.7	
KOSPI	4,214.2	6,788.9	6,687.2	▲2,473.0	▲58.7%	▼101.7	▼1.5%			

주가 Comment

- 주가 코멘트: 이번 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 통신 주간 -3.5%, KOSPI -1.8%. YTD 통신 +32.9%, 지수 +58.7%. 이번 주는 통신이 하락했지만, 6/22 지수 고점 시점 대비로는 아웃퍼폼. 6~7월 지수 급락 구간에서 지수 -39%, 통신 -7%. 7월말 이후 반등 구간에서는 지수 +20%, 통신 +8%. 누적 기준 지수 -27%, 통신 +1%
- SKT는 반도체와 Anthropic의 실적/IPO 등의 소식에 따라 움직이면서 이번 주도 높은 변동성을 보였고, 주주환원 수익률이 높고 밸류에이션 매력에 높은 KT와 LGU+는 지수의 급락 구간만 제외하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 통신업종을 둘러싼 특별한 이벤트는 감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통신주는 성장 동력인 AIDC 관련한 움직임이 및 주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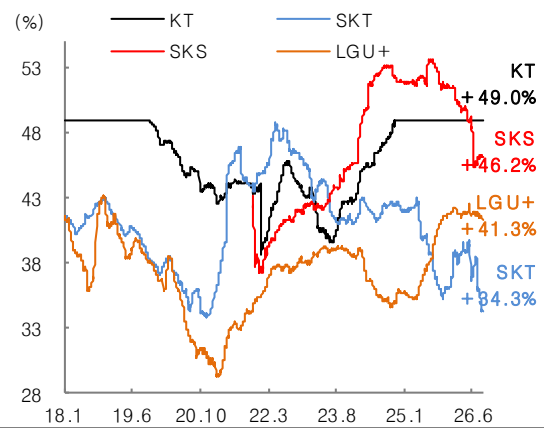
2. 주가 차트

26년 YTD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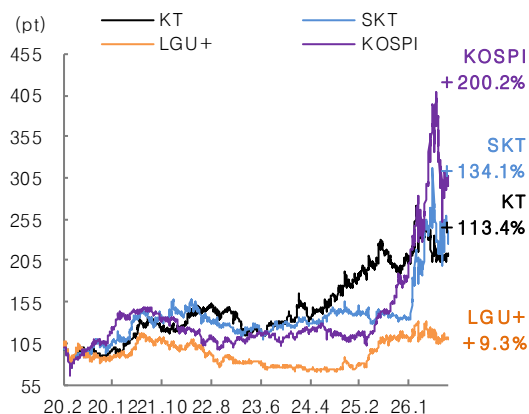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외인 지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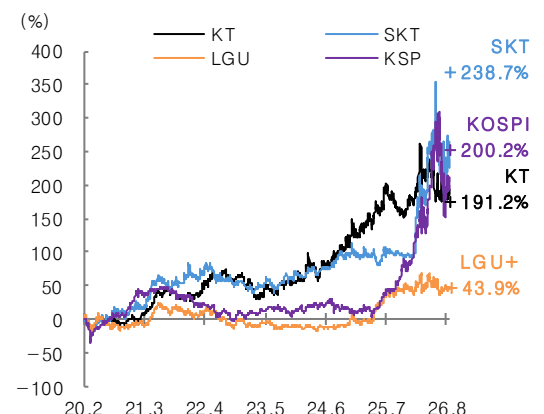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 시점 대비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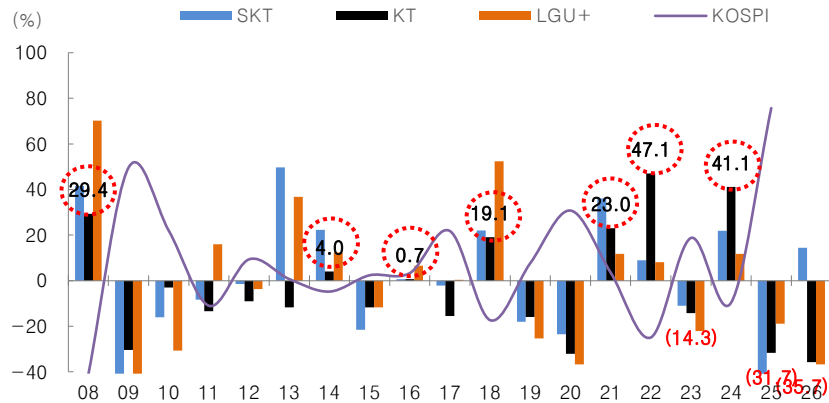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 시점 대비 배당 재투자 수익률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YTD 주가 상승률(KOSPI 대비 상대 수익률).
SKT +72.9%(+9.0%), KT +3.2%(−34.9%), LGU+0.3%(−36.8%)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6년초부터 SKT의 급등으로 26.2월 기준 통신업은 KOSPI 대비 아웃퍼폼

	SKT	KT	LGU+	KOSPI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19	(11.7)	(9.4)	(19.5)	7.7	(18.0)	(15.9)	(25.3)
20	0.0	(11.1)	(17.3)	30.8	(23.5)	(32.0)	(36.7)
21	41.0	27.5	15.7	3.6	36.1	23.0	11.7
22	(18.1)	10.5	(18.8)	(24.9)	9.0	47.1	8.2
23	5.7	1.8	(7.4)	18.7	(11.0)	(14.3)	(22.0)
24	10.2	27.5	1.0	(9.6)	21.9	41.1	11.7
25	(3.1)	20.0	42.5	75.6	(44.8)	(31.7)	(18.9)
26	72.9	3.2	0.3	58.7	9.0	(34.9)	(36.8)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주: 파란색 음영은 통신3사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 주황색 음영은 지수 대비 상대수익률이 (+)이면서 가장 높은 기업

3. 주간 코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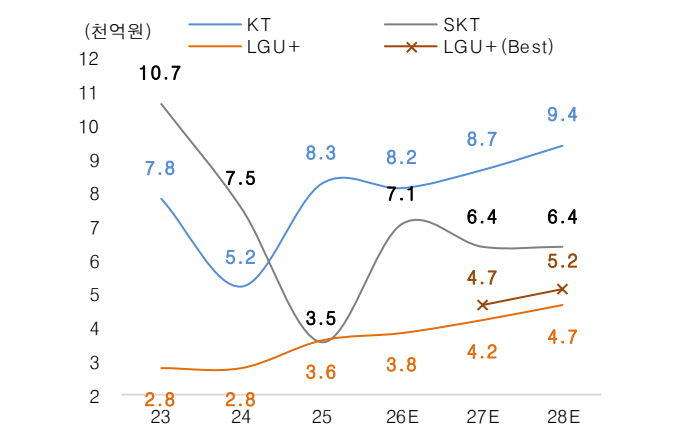
8월 번호이동, KT 국산 AI 대종화, KT·LS AI DC 협력, SKB AI 네이티브 전환, 모두의 AI 경쟁 본격화

산업	8월 전체 번호이동자는 68만명으로 전월 대비 7.1%,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폴립8 출시를 계기로 신작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번호이동 증가를 견인 - KT 번호이동자는 9.6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유입보다 이탈이 많아 한 달 동안 가입자 1.3만명 손감.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유일하게 대규모 순감세를 기록하며 8월 번호이동 경쟁에서 상대적 열위 - LGU+ 번호이동자는 11.3만명으로 1만명 순증.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큰 가입자 순증 기록. 신규 스마트폰 출시기에 발생한 번호이동 수요를 가장 적극적으로 흡수 - SKT는 14.0만명이 번호이동, 1.4천명 순증. 소폭의 가입자 증가세 기록. KT의 대규모 순감과 LGU+의 1만명 이상 순증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가입자 변동 제한적 - 알뜰폰 번호이동자는 33.2만명으로 전체 번호이동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 순증 규모는 1.4천명 기록. 이동 규모 자체는 통신 3사보다 컸지만 유입과 이탈이 맞물리면서 순증 폭은 제한적 9월에는 아이폰18 프로·프로맥스와 첫 폴더블 아이폰 출시가 예정돼 번호이동 시장의 추가 확대 가능성. 주요 신제품을 활용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이어지면서 통신 3사의 지원·마케팅 전략 집중
경쟁적	메이커 폰 등장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 시장은 과열되지 않고 과거 평균 수준 유지. 해킹으로 인한 활발한 통신사 이동이 마무리되었고, 다양한 유무선 결합을 통해 번호이동보다는 기변 위주로 시장이 정착되었기 Eoansd
KT	- KT가 국내 AI·플랫폼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의 '모두의 AI' 사업 공모에 참여하며 국산 AI 기술의 대중화와 상용화 추진. AI 모델·반도체·플랫폼 기술을 KT의 통신망·클라우드·데이터센터와 결합해 대규모 국민 서비스로 구현하는 전략 - 정부는 이달 말 2~3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엔비디아 B200 GPU를 지원해 연내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 출시를 추진할 계획. 향후 자산관리·학습 코칭·노후 설계 등으로 기능을 확대해 '전 국민 1인 1 에이전트' 체계 구축 목표 - 인프라 분야에는 리벨리온·래블업·베슬AI코리아가 참여해 국산 NPU와 컴퓨팅 자원 운영, AI 개발·운영 플랫폼 기술 제공. 업스테이지·모티프테크놀로지스·NC AI·솔트룩스·액션파워 등은 서비스별 특성에 맞는 AI 모델과 전문 기술 공급 - KT는 여러 모델과 컴퓨팅 자원을 서비스 환경에 맞게 배치하는 'AI 오케스트레이션'과 대규모 운영 역량을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 전국 통신 인프라와 클라우드·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이용자 급증과 트래픽 변화에도 대응 가능한 안정적 서비스 환경 구축 - 서비스 분야에서는 EBS·관다·무신사·커넥트웨이브·다음·작방·BC카드 등 대규모 이용자 기반 플랫폼과 협력해 교육·쇼핑·검색·주거·금융에 AI 적용. 관다는 누적 이용자 약 9,700만명, 무신사는 약 1,700만명 규모로 국산 AI의 실제 활용처 확보 - KT 컨소시엄은 국내 AI 기업에 대규모 상용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면서 속도·안정성·비용 효율 등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할 기회 마련. 정부의 독자 AI 모델·인프라 확보 정책을 국민 생활 서비스로 연결해 국내 AI 생태계의 사업화 기반을 확대하는 구상

공정적	■ LLM 개발 단계에서부터 독자 AI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 다만, 당장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국산화하고, 이후 기회가 되면 LLM도 국산화를 시도하는 것을 소버린 AI 시대를 대비한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
KT KT-LSAIDC 협력	1. KT클라우드가 LS일렉트릭과 AI 데이터센터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AI 데이터센터 규모 확대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인프라 공급 협력체계 구축 2. LS일렉트릭은 KT클라우드의 데이터센터 구축 일정에 맞춰 필요한 주요 전력설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 AI 데이터센터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한 전력 인프라의 적기 확보에 초점을 맞춘 협력 3. 양사는 차세대 AI 인프라 환경에 최적화된 모듈형 데이터센터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 강화. LS일렉트릭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데이터센터 전력 솔루션을 KT클라우드와 공동 연구하는 구조 4. KT클라우드는 모듈형 데이터센터의 설계를 표준화해 구축 기간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 추진. 고객의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라 데이터센터 용량을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5. 향후 모듈형 데이터센터 규모는 고객 수요에 맞춰 최대 1GW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 대규모 AI 연산에 필요한 전력 공급 능력과 데이터센터 구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사업 방향 6. 이번 협력은 데이터센터 운영 역량을 보유한 KT클라우드와 전력 솔루션 기술을 보유한 LS일렉트릭의 역할 결합. AI 데이터센터 시장 확대에 대응해 전력설비 공급부터 설계·기술 개발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 전략
공정적	■ 지금은 공급보다 수요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AIDC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
SKT SKB AI 네이티브 전환	1. SKB가 통신·미디어 사업 전반을 AI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AI 네이티브 서비스 컴퍼니' 전환 본격화. 상품·서비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AI를 내재화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와 내부 업무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 2. 실행 측은 고객이 체감하는 상품·서비스 혁신과 사람·오프라인 중심 업무를 AI 기반으로 바꾸는 AX 프로세스 전환으로 구성. 구성원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해 고객 요구와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 강화 3. 고객 상담에서는 24시간 AI 챗봇의 적용 범위를 요구·설치·이사·A/S 등으로 확대해 전체 문의의 약 93%를 고객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B tv에는 에이닷과 LLM을 결합한 'AI B tv'를 적용했으며 누적 이용 건수 1.4억건 돌파 4. 네트워크에는 AI 관제·진단 에이전트 'C-one'을 적용해 이상 징후와 원인, 점검 우선순위를 자동 식별하고 보고서까지 생성하는 구조. B tv에서는 'AQUA'가 장애 징후를 실시간 감지해 고객 불편 발생 전 선제적인 품질 개선 지원 5. 품질 관리에는 B tv 셋톱박스에서 매일 수집되는 22억건 이상의 데이터와 서비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740개 품질 지표 활용. 방송설비·네트워크·셋톱박스·TV까지 연결된 데이터를 365일 24시간 분석하는 AI 기반 운영체계 강화 6. 내부 AX는 CEO 직속 AI 보드와 사내 커뮤니티 단비, AI 프론티어 등을 통해 현업 사례와 활용 역량을 전사로 확산하는 구조. AI 플랫폼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약 2천개 AI 앱을 개발·운영 중이며 가운데 60여개 AI 에이전트를 실제 현장에 적용
공정적	■ AI 컴퍼니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AI를 활용해서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
산업 모두의 AI 경쟁 본격화	1. 정부의 '모두의 AI' 사업자로 SKT·카카오·KT가 선정돼 연내 국산 AI 기반 범용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 출시 추진, 금일 청사진 발표. 정부는 3개 컨소시엄에 엔비디아 B200 GPU 512장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서비스 운영 비용까지 지원할 계획 2. SKT는 자체 모델 A.X K2를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넘어 인증·신청·결제까지 처리하는 '실행형 AI'를 개발하며 전화·문자 기반 접근 방식 채택. 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1532'를 통해 AI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설계해 접근성에 초점 3. 카카오는 카나나 계열 51%, LG AI연구원 역사원 계열 49%로 LLM을 구성하고 카카오톡 친구 탭에 서비스 진입점 배치. 정보 탐색부터 신청·예약·결제까지 대화로 연결하며 올해 MAU 500만명, 2030년 3,000만명을 목표로 설정 4. KT는 실시간 검색형 범용 AI와 공공·교육·금융·쇼핑 등 10여개 특화 서비스를 연결한 '이음'을 다음 검색에 내장할 계획. KT 자체 모델과 업스테이지·모티프테크놀로지스·NC AI·솔트룩스 등의 모델을 통합해 요청별 최적 모델을 연결하는 멀티모델 전략 5. 정부의 내년 사업 예산은 총 2,500억원으로 B200 GPU 2,000장 임차에 1,700억원, 3개 사업자 직접 지원에 총 300억원 배정. GPU 비용은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구조여서 이용자와 활동성이 높은 컨소시엄에 더 많은 예산이 배분되는 방식 6. 정부는 선정된 3사의 평가 점수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외산 AI 대비 뚜렷한 차별성과 국민 체감형 서비스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 독자 AI 모델과 국산 AI 반도체를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AI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 방향
공정적	■ LLM 개발 단계에서부터 독자 AI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 다만, 당장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국산화하고, 이후 기회가 되면 LLM도 국산화를 시도하는 것을 소버린 AI 시대를 대비한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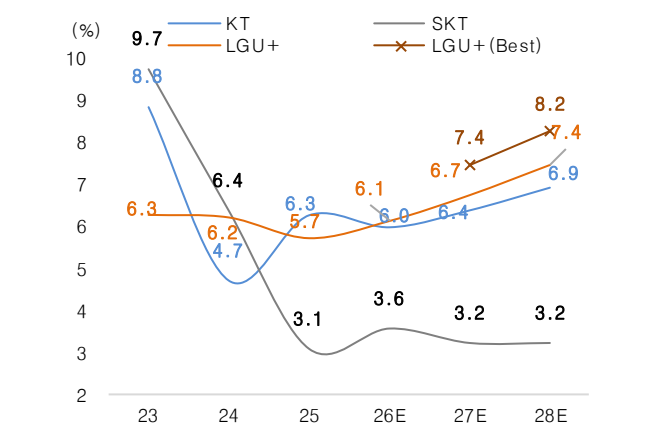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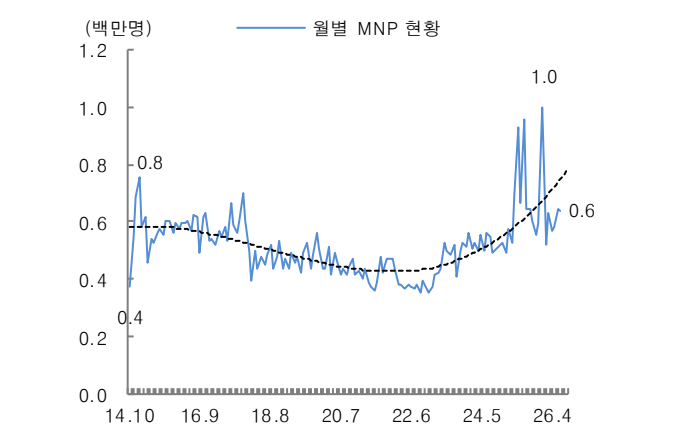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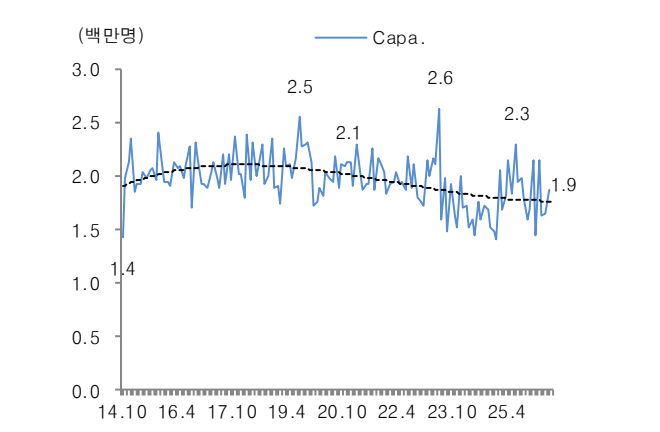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번호이동(26.7월) 64만명, -0.7만명 mom. 25년 월평균 66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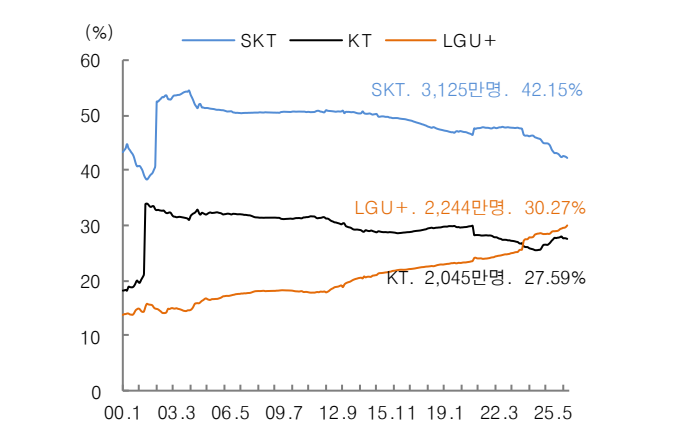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apa.(신규 + 번이 + 기변) 187만명(26.6월). 24~25년 평균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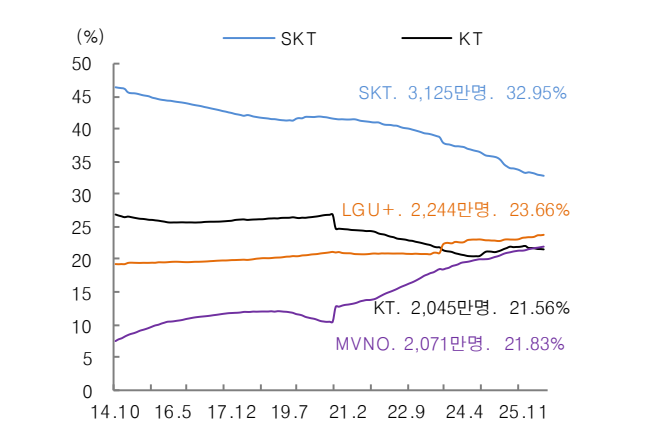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6.6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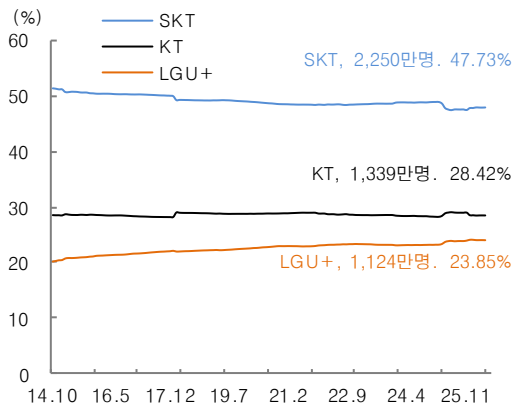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6.6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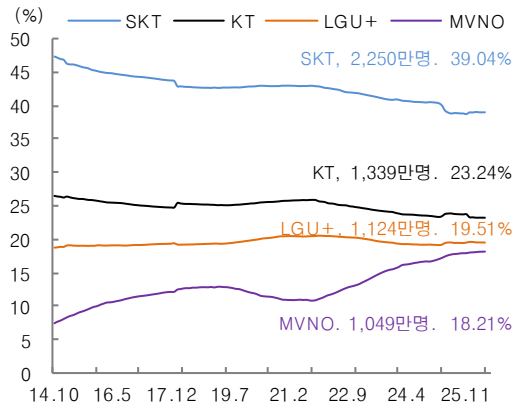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6.6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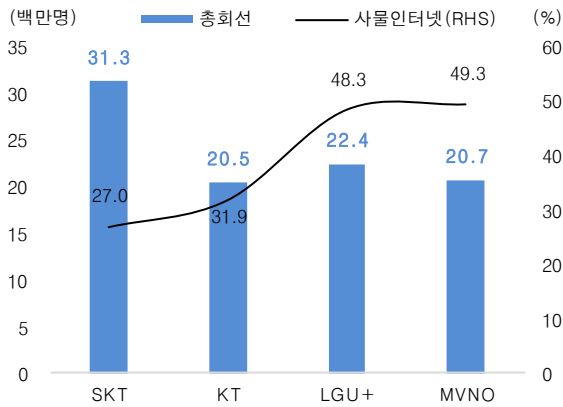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6.6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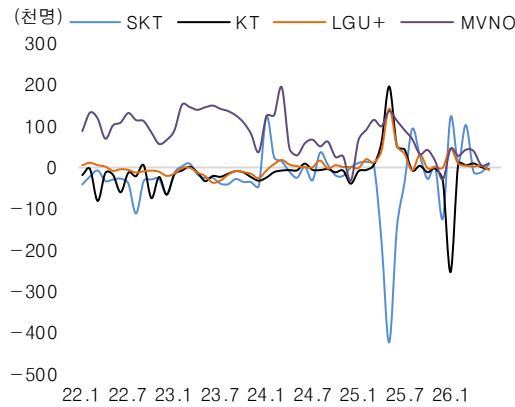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vs. 사물인터넷 비중(26.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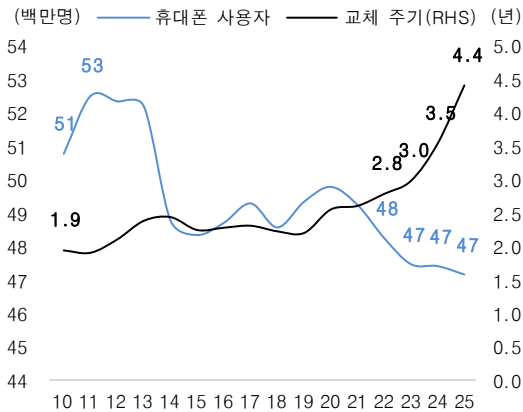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순증(26.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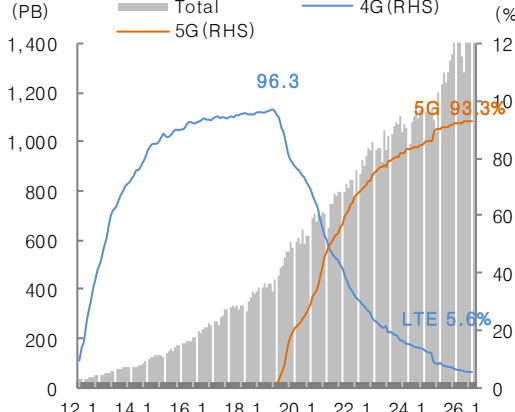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교체주기 4.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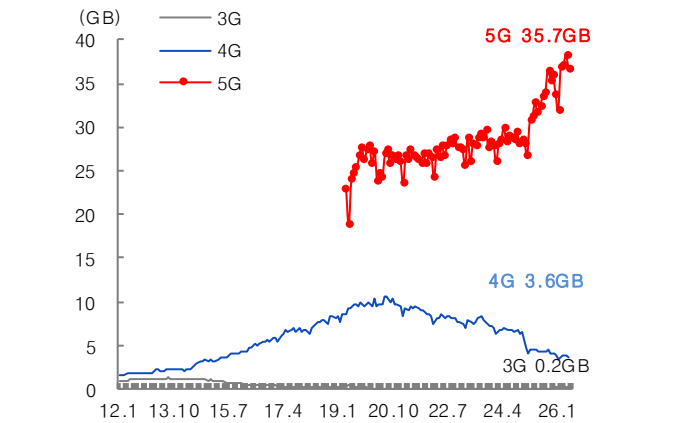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비중 93.3%(26.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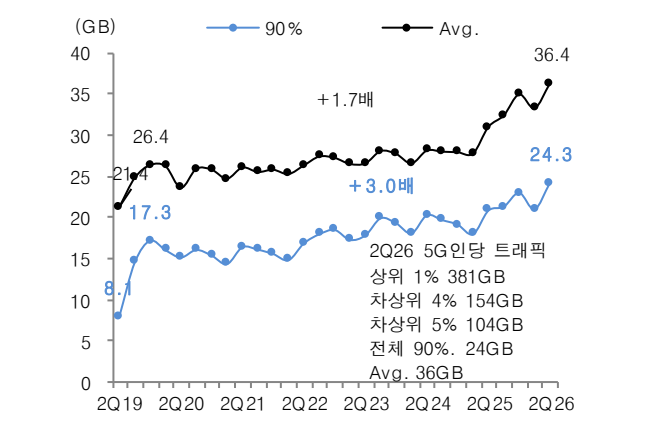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인당 월평균 5G 트래픽 35.7GB(26.6월), -1.5GB m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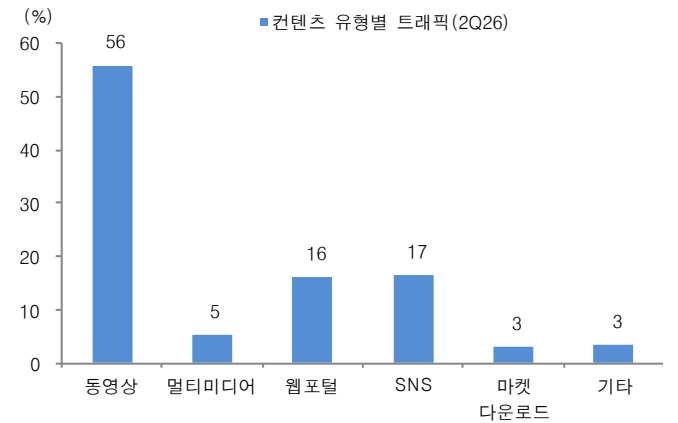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추이(2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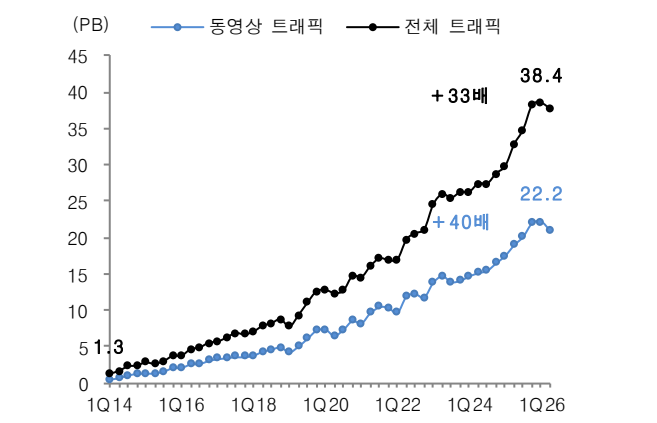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콘텐츠 유형별 트래픽(2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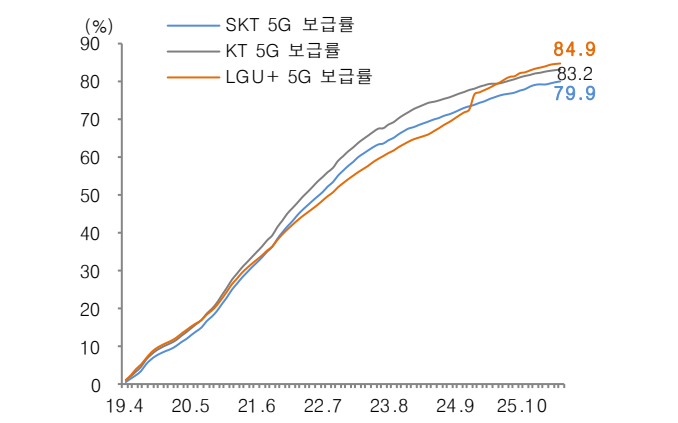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동영상 트래픽 vs. 전체 트래픽(2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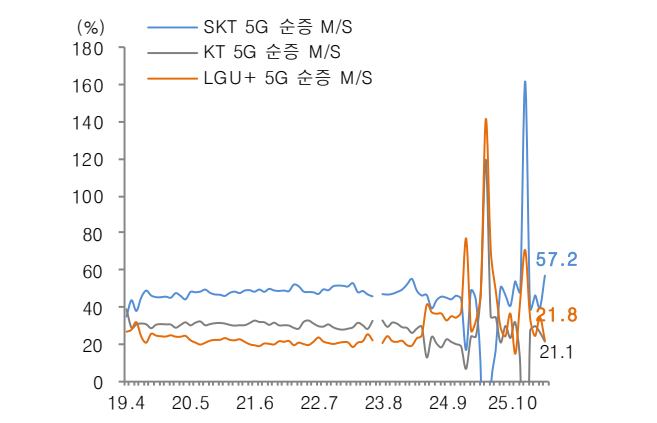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대비 5G 보급률 82.0%(26.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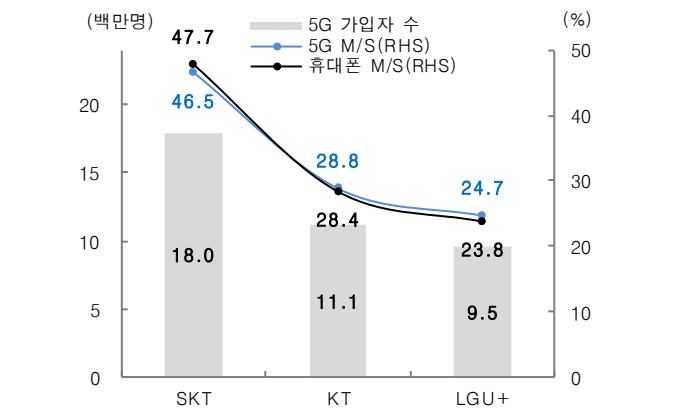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순증 점유율(26.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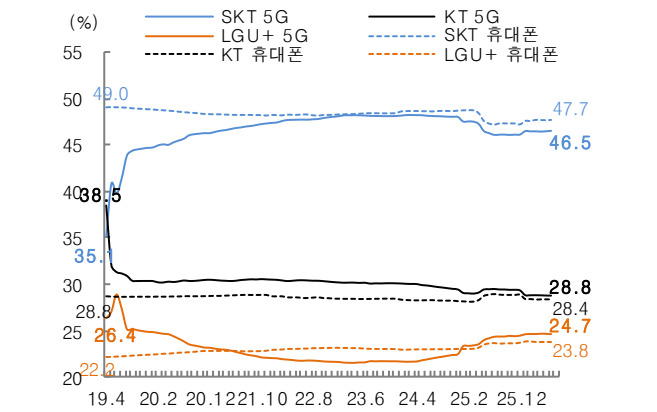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 (26.6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 (26.6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김희재)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